



해외 감염병 발생동향

'25년 제5호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(2025.02.06.)

에볼라바이러스병

- (우간다) 우간다 수도 캄팔라(Kampala)에서 발생 보고 및 WHO 대응지원 확대

콜레라

- (전 세계) 동지중해 및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지속 발생 보고

출처: WHO, ECDC, 각국 보건부, 언론보도 등

* 동 자료에 대한 재배포 및 내용 인용 시 작성부서(질병감시전략담당관)와 사전협의 바랍니다.

E-mail : yijee88@korea.kr



질병관리청
Korea Disease Control and
Prevention Agency

목 차

□ 국외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

- 1. 에볼라바이러스병 (우간다) 2
- 2. 콜레라 (전 세계) 4

□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

- 1. 인플루엔자·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 예방수칙..... 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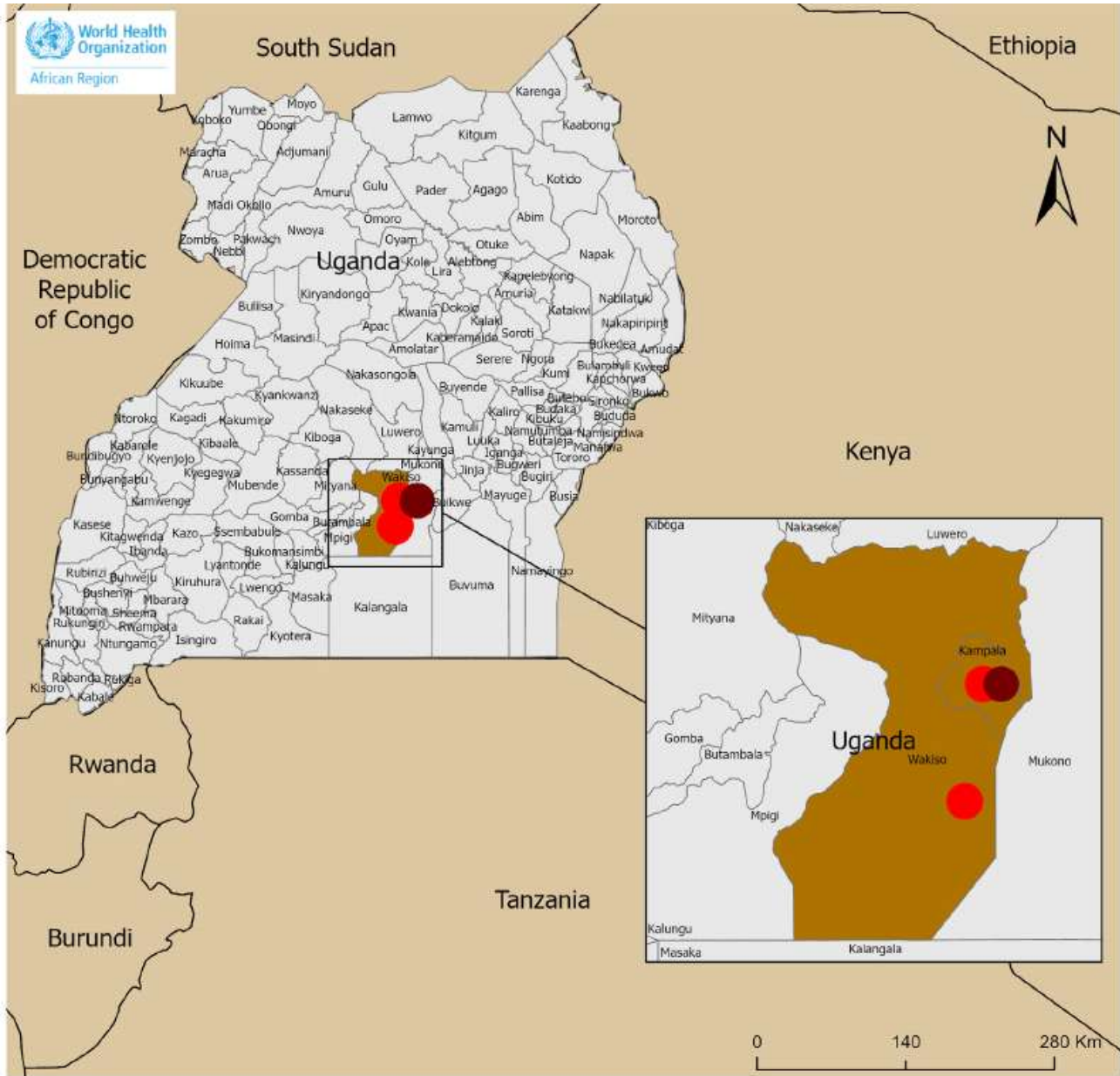
※ 금주부터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간행물 '주간 건강과 질병' (<https://www.phwr.org>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국외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(2025.1.26.~2.1.)

법정 [에볼라바이러스병/우간다] 우간다에서 발생 보고, WHO 대응지원 확대

(발생 현황) 우간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보고 및 WHO 대응지원 확대

-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(Kampala)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자가 발생하면서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긴급 대응을 확대 중임
 - 에볼라바이러스 중 하나인 *Sudan ebolavirus*에 감염된 환자이며, '23년 1월 우간다 에볼라 유행 종료 선언 이후 약 2년 만의 신규 확진 사례임
- 우간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확진자는 총 3명이며, 이 중 최초 환자가 32세 남성 간호사로 고열, 흉통, 호흡곤란 등의 증상(1.29일)을 보이다가 신체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밝힘
 - 첫 번째 환자의 사망 이후 아내와 자녀는 진자(Jinja City)로 이동하여, 아내는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며, 자녀 역시 증상이 나타나 지역 약국과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음
 - 첫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의료진 34명과 가족 11명, 총 45명으로 보건당국에서 모니터링 중임
- 이에 따라, 세계보건기구(WHO)는 우간다 보건부와 협력하여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을 막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신속한 조치를 시행 중임
 - WHO 고위급 공중보건 전문가 및 WHO 우간다 국가사무소 인력 파견
 - WHO 위기대응기금 100만 달러 배정 및 개인보호장비(PPE) 등 의료용품 긴급 배송
 - 백신 및 치료제 사전 배치: 현재 승인된 백신 및 치료제는 없으나, 연구 중인 후보 백신 및 단일클론항체·항바이러스제 2,160회분이 캄팔라에 사전 비축됨
 - 백신 승인 대기 기간동안 백신 연구팀이 현장에 배치되어 임상 시험 프로토콜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 입증 가능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
- 또한,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신속한 감시 및 집중 대응이 필요하며, WHO는 현지 보건당국과 협력해 에볼라 확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이라고 밝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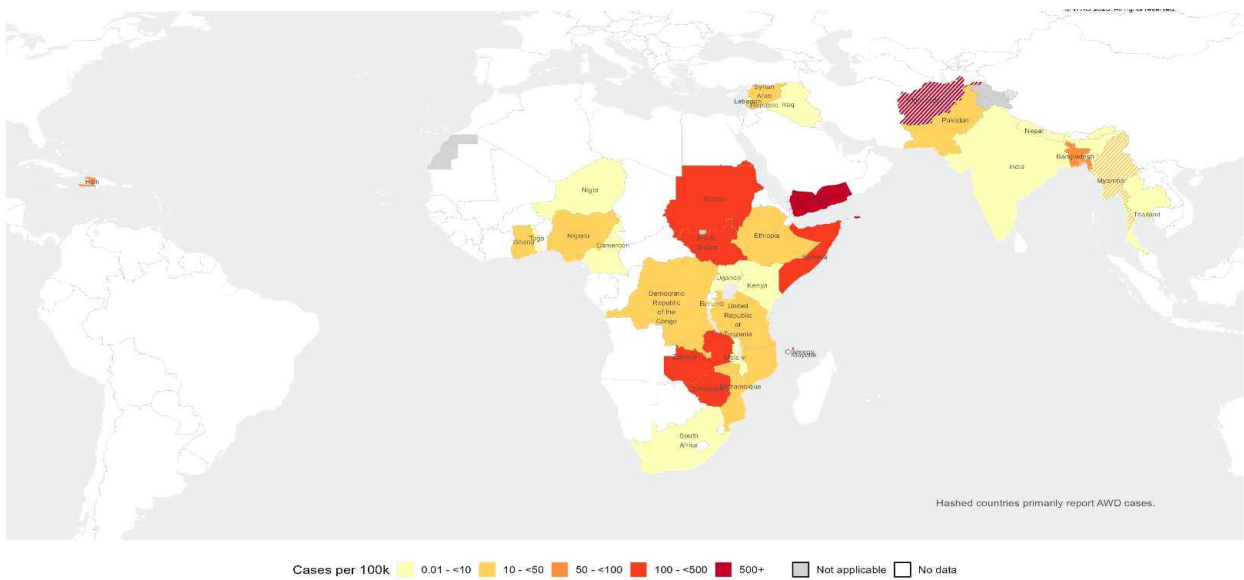


< 우간다 수도 캄팔라(Kampala)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지역(WHO/AFRO, '25.2.2.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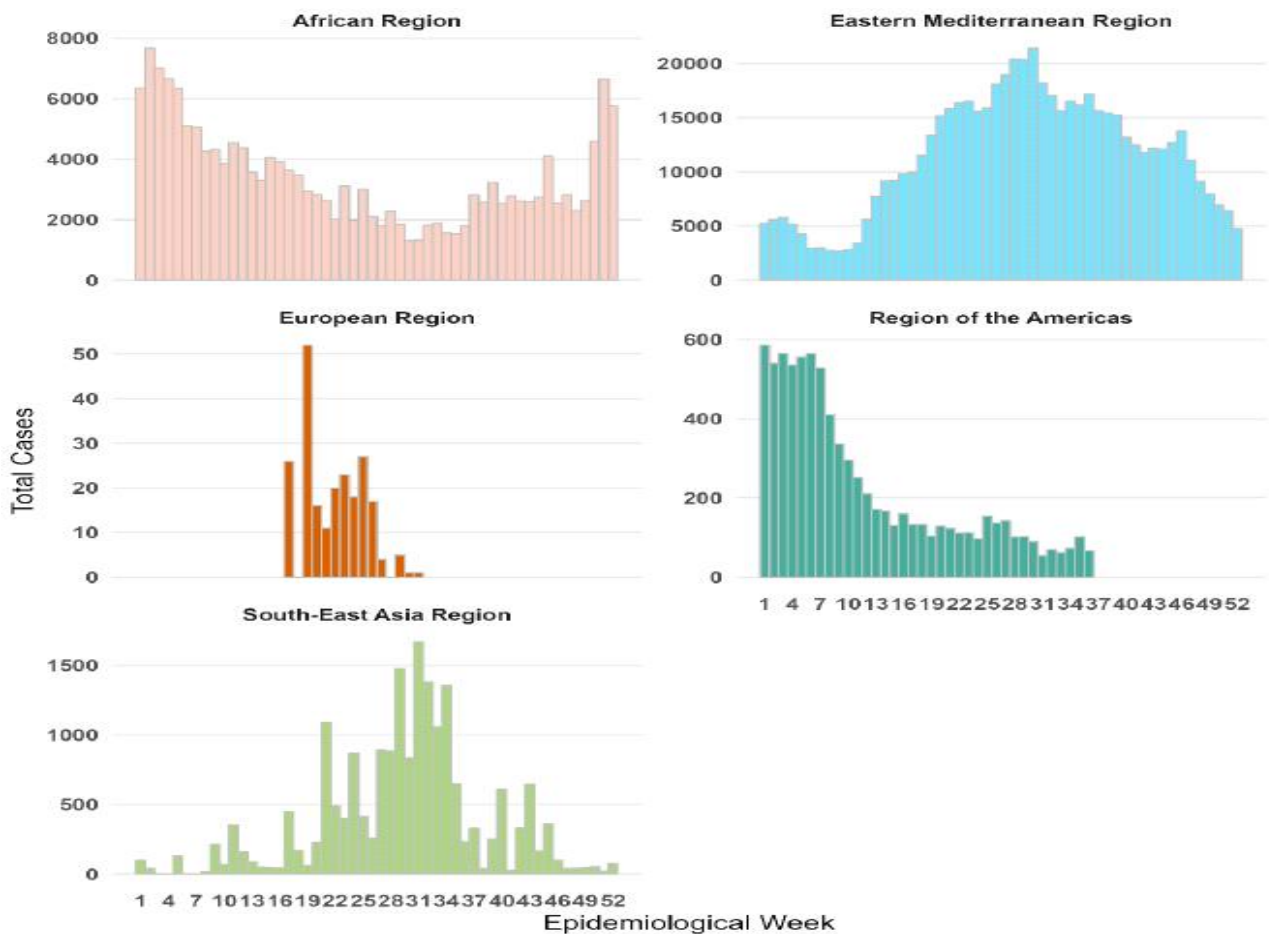
※ 자료 출처 : WHO/AFRO, WHO/HQ, WHO DON

법정 [콜레라/전 세계] 동지중해 및 아프리카 지역 중심 지속 발생 보고
☞ (발생 현황) '24년 12월 기준 동지중해 및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지속 발생 중

- 세계보건기구(WHO)에 따르면 전 세계 33개국에서 '24년 콜레라 누적(2024.1.1.~12.29.) 804,721명 발생했으며, 이 중 5,8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
 - WHO 지역별로는 동지중해(597,026명), 아프리카(177,570명), 동남아시아(19,348명), 미주(10,556명), 유럽(221명) 순으로 발생이 많았음
 - ※ 서태평양지역은 '24년 발생 보고 없음
- '24년 12월(49~52주차) 기준, WHO 3개 지역(동지중해, 아프리카, 동남아시아) 21개국에서 총 45,986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으며, 이로 인한 사망자는 457명으로 보고되었음
 - 전월 대비 22% 감소, 사망은 8% 증가함
 - (동지중해) '24년 12월 기준, 6개국에서 26,125명 발생, 이 중 125명이 사망하여 지난달 대비 발생 44% 감소, 사망도 44% 감소함
 - * 주요 발생 국가: 예멘(10,502명), 아프가니스탄(7,668명), 수단(5,092명), 파키스탄(1,979명)
 - (아프리카) '24년 12월 기준, 14개국에서 19,659명 발생, 이 중 332명이 사망하여 지난달 대비 발생 67% 증가, 사망도 126% 증가함
 - * 주요 발생 국가: 남수단(12,897명), 가나(2,071명), 콩고민주공화국(1,814명)
 - (동남아시아) '24년 12월 기준, 방글라데시에서 202명 발생, 사망은 없었으며, 지난달 대비 63% 발생 감소함
- 콜레라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발생이 21%, 사망은 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전쟁, 난민 유입, 자연재해,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감염 확산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 - 특히, 도심 외 및 홍수 피해지역에서 열악한 인프라와 제한된 의료 접근성으로 인한 치료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



<'24년 1~12월(~12.29.) 전 세계 콜레라 및 급성 설사 발생 지역(WHO/HQ '25.1.24.)>



< '24년 1월~12월(~12.29.) 전 세계 콜레라 주차별 발생(WHO/HQ '25.1.24.) >

※ 자료 출처 : WHO Multi-country outbreak of cholera External Situation Report('25.1.24.)

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

인플루엔자·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 예방수칙

* 참고 : 질병관리청 네이버포스트(<https://me2.kr/Hikoa>)


2025.1.21. 질병관리청

인플루엔자·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 예방수칙

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.1% 수준이나,
특히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.

고위험군*은 지켜주세요!


*어르신, 면역저하자 등



- 1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
- 2 밀폐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·행사 등은 피하기
- 3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인근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기

감염취약시설*은 지켜주세요!

*요양병원, 요양시설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시설, 의료기관 등



- 1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2 보호자나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기
- 3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
- 4 인플루엔자·코로나19에 진단되었거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기